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3월 17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1-2절

설교제목 :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야기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장소는 산입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산’(오로스)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토가 붙은 것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스’는 ‘높은’이란 뜻의 ‘헵셀로스’에 의해 수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높지 않은 산이나 언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에는 ‘평지’라고 합니다.(눅6:17) 산과 평지는 다른 차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성지순례에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지형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면 산, 즉 작은 언덕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면 평지에 가깝습니다. 갈릴리 아래에서 보면 산이고, 올라와서 보면 평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가 ‘오로스’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오로스’에 해당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하르’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인 십계명을 받은 곳이 시내 산인데, 산을 ‘하르’로 표기합니다.(출 19:2, 24:4) 따라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새 율법을 선포하고 계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선 무리입니다.(1절) 무리는 앞서, 마4:23-25에 언급된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마태는 제자들이 나아왔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1절)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여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추종자들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태가 무리와 제자란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려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병고치는 기적과 감동적인 설교에 매료되어 찾아온 무리들과 예수님께 진정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아온 제자들이 있었음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나아온지라’는 헬라어는 매우 가까이 접근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모세만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뿐 일반 백성들은 감히 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나 제자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으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 산상수훈을 감싸고 있는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감싸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4:23과 마9:35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마4:23과 마9:35절의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가운데 내용을 강조합니다. 즉 마5-9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5-7장은 가르침의 내용인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마8-9장은 고치심의 내용으로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설교도,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모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을 읽을 때 한 구절 마다 하나님 나라를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팔복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복(마5:3)과 마지막 복(마5:10)이 모두 천국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팔복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팔복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처럼 산상설교의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수준이 너무 높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길 기대하십니다.(마7:21)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3년 내내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간주했습니다.(행1:6)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행1:8)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 삶을 깨뜨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핵심에 주기도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산상수훈의 장소는 산(오르스)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오르스(산)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 2) 산상수훈의 대상은 무리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무리와 제자란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산상수훈의 말씀은 매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 수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